

中國의 保險事情

■ 중국의 보험회사

현재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국내사가 셋, 외국사가 둘이다.

(1) 中國人民保險公司(PICC)

본점을 북경에 두고 國務院 직속으로 되어 있는 국영회사로서 전국 규모로 영업하고 있다.
손해보험을 주체로 하고 생명보험도 겸업하고 있다. M/S는 95% 이상이다.

(2) 中國太平洋保險公司(CPIC)

交通銀行으로부터 1991년 4월에 분리, 독립되었다. 본점을 上海에 두고 大連·北京 등에도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손해보험 전업이지만, 재보험, 생명보험도 취급할 계획이다.

(3) 平安保險公司(PAIC)

1988年 深圳市에 설립되었다. PICC에 이은 제2의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조직을 취하고 있다. 深圳市 외에 海南省 등에 지점이 있고, 손해보험 전업 회사로서, 재보험도 취급하고 있다.

(4) 民安保險有限公司

1949년 10월, 홍콩에서 개업한 회사이지만 중국 대륙계 조직도 자본 참가를 한 PICC계의 보험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본거지인 홍콩에서 비교적 대규모로 영업하는 외에 중국 대륙 내에서도 영업하고 있다.

(5) AIA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1992년 12월에 上海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100% 외자의 보험회사가 중국 국내에서 영업을 인가 받은 것은 AIA가 처음이다. 생·손보 겸업이지만 손보에 대해서는 上海市 소재의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중국의 부보규칙

이 나라에서는 「중국 국내의 국가·집단·개인이 재산의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국 국내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 위 5개 보험회사 이외에는 현지 물건의 보험 인수를 할 수 없다.

■ 일본의 중국 보험시장 진출

(1) 영업형태

위 2개사 이외의 외국 보험회사는 현재 중국에서의 영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원수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東京海上는 그들의 고객을 PICC등 중국의 보험회사에 소개하고 있다. 이때 수속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금액이 큰 경우에는 임의 재보험을 받기 위해 교섭하고 있다.

(2) 주재원 사무소

東京海上는 1980년에 세계의 보험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北京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중국측 관계 기관과의 교류를 깊게하는 한편, 고객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에는 上海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재원을 파견하였다. 上海에 이어 11월에는 廣州사무소를, 12월에는 大連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주재원은 파견하지 않고, 일본어가 가능한 현지 스탭을 배치하고 있다.

■ 금후의 영업 전개

주재사무소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은 당연히 제약이 따르므로 조속히 원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에서의 AIA는 上海에서 제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중국 당국의 설명으로는 上海를 모델 도시로 선정하여 외국 보험회사를 시장에 참가시키는 것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싶다는 뜻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 개혁을 위한 테스트를 모든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AIA의 경우도 이 테스트의 일환으로서, 그 범위,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